

가정 성화의 요람

단내 성가정 성지

2024.1

242호

17395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171

TEL : 031 633 9531(사무실)

FAX : 031 634 9530

<http://dannae.or.kr>

“살다보면, 덕분에 삽니다”

이용규 요한사도 | 성지 전담신부

살다보면, 덕분에 삽니다.. 하면서 받은 도움에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너만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하면서 힘듦과 고통을 받은 것을 아파하기도 합니다. 신부로 살면서 후자의 경우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자의 상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랬기에 2024년에도 신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같은 신부들은 참으로 신자들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의 신부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신부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신자들에게 기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103분의 성인들과 124분의 복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자 최인길(마티아) 회장을 떠올려 봅니다. 조선 천주교회에 실질적으로 최초로 파견된 사제는 복자 주문모(야고보)신부입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1794년 12월에 조선에 입국을 하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밀고자에 의해서 그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어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최인길(마티아)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선 자신의 집에 거주하던 그분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그 시간을 벌어주고자 신부로 위장하고 집에서 포졸들을 기다립니다. 그가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중국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 덕분에 주문모(야고보)신부는 그 이후에 약 6년간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지요.

반면에 최인길 회장은 신부로 위장을 하고 시간을 끌다가 대신 잡혀가게 됩니다. 신부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1795년 6월에 순교하게 됩니다.

주문모 신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후 6년간 조선땅에서 사목하면서 항상 최인길 회장에게 큰 빚을 진 채 무자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 6년이 흐른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6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많은 신앙의 열매를 일구어 놓았는데 박해로 일단 중단이 됩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신자들이 잡혀가고, 그분의 행방을 자백하도록 추궁을 받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의주까지 가게 됩니다. 압록강만 넘으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떼는 목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양 폐와 운명을 같이 해야 겠다...”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되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801년 5월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최인길 회장과 많은 신자들 덕분에 신부로 6년을 사목하였는데,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나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잡혀 가고 있는데, 홀로 중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 해결책인가? 비겁한 결정은 아닌가?.. 그래. 신자 덕분에 살았는데, 나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당하면 안 되지....

조선땅에서 처음으로 사목을 하신 주문모 신부는 부끄러울 뻔 했지만, 그렇지 않은 길을 오늘을 살아가는 신부들에게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고 있는 삶임을 신부들이 명심하면서 덕분의 주체인 신자들에게 조금 더!!!!... 살갑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문모 신부처럼 신자들에게 돌아가는 신부의 길이 2024년에도 계속되기를 기도 청합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만 잘하면 돼. 다른 신부들은 다 잘하고 있어....

2024년에도 단내 성가정 성지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온화한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도 시작했습니다.

성가정 성지 후원가족이 되어주십시오

- ❖ 소중히 보내주신 후원금은 단내 성가정 성지 운영 및 개발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 ❖ 성가정 성지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월요일 제외)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또한 매일 미사 때마다 후원 가족님들을 위해 지향을 두고 기도합니다.(특별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는 후원 가족 및 가정 성화를 위한 '감사와 찬미의 미사'로 봉헌되고 있습니다.)
- ❖ 단내 성가정 성지에서는 금융결제원과 'CMS 출금이체 시스템'이 체결되어, 후원 회원가입과 동시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은행에 직접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불편함 없이) 성지 사무실에서 CMS 출금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준 후원 회원님께서도 CMS 출금이체를 원하신다면, ARS 및 우편으로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성지사무실로 문의 해 주세요. ☎ 031-633-9531
- ❖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신분증, 도장, 본인통장, 아래(성지 후원회비 보내실 곳)의 계좌번호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직원에게 자동 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수수료가 절약되어 성지에 도움이 되며, 후원가족님께서는 매번 은행가는 번거로움을 더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 ❖ 인터넷뱅킹 송금 및 계좌이체시에는 아래 '성가정 성지 후원회비 보내실 곳'을 참고하시어, **후원가입 성명**으로 입금 해 주세요.
- ❖ 후원가입성명과 입금하신분의 성명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세금 감면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후원가족님들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성가정 성지 후원회비 보내실 곳 (예금주 : 천주교 수원교구 단내성지)

- | | |
|----------------------------|---------------------------|
| • 우 체 국 : 102764-01-000451 | • 농 협 : 183-01-306141 |
| • 국민은행 : 677201-01-198635 | • 우리은행 : 1006-501-233467 |
| • 신한은행 : 140-007-153207 | • 신 협 : 03227-12-003345 |
| • 제일은행 : 623-20-336240 | • 하나은행 : 494-910006-42504 |

♣ 주위 분들에게 후원가족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 미사 전례 안내

주일 미사	오전 11시
평일 미사	매일 오전 11시 (월요일은 휴무일로 미사봉헌 없음)
1월 1일(月)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오전 11시
1월 4일(木)	성시간 (오전 11시 미사 후)
1월 13일(土)	하느님의 종 정은 바오로 · 정양묵 베드로 순교기념일(157주년) 미사
1월 20일(土)	후원가족 및 가정 성화를 위한 감사와 찬미 미사 오전 11시
1월 28일(日)	주일 미사 오전 11시 후 전당신부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2월 1일(木)	성시간 (오전 11시 미사 후)
2월 10일(土)	설 미사 오전 11시
2월 17일(土)	후원가족 및 가정 성화를 위한 감사와 찬미 미사 오전 11시
2월 25일(日)	주일 미사 오전 11시 후 전당신부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3월 7일(木)	성시간 (오전 11시 미사 후)
3월 16일(土)	후원가족 및 가정 성화를 위한 감사와 찬미 미사 오전 11시
3월 31일(日)	주일 미사 오전 11시 후 전당신부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 고해성사는

미사 전에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단내 성가정 성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월 도보(5km) 순례

일 시	1월 28일(주일) 11:00~14:30
일 정	11:00 미사 / 12:00 간단한 식사(개인준비) 12:30 도보순례 · 묵상 / 14:30 마침
인 원	12명 선착순
준 비 물	침묵의 마음, 등산화, 물, 중식
신 청	1월 27일(토)까지 성지 사무실 T. 031 633 9531

❖ ‘가정 성화의 요람’ 단내 성가정 성지에서는 ‘매월 3째 주 토요일 11시 미사’가 ‘가정 성화를 위한 감사 찬미 미사’로 봉헌됩니다. 이번 1월은 20일 토요일입니다.

❖ 단내 성가정 성지의 ‘하느님의 종 – 순교자 정은 바오로와 정양묵 베드로’를 포함한 ‘하느님의 종 – 이벽 요한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시성을 기원합니다.

하느님의 종 정은 바오로와 정양묵 베드로로 순교자는 재종손이자 대부·대자 관계로 1866년 병인박해 때 할아버지 정은 바오로가 잡히시자 정양묵 베드로도 ‘대부를 따라 치명하려 왔으니 나도 죽여주시오’ 하며 스스로 광주관아로 들어가, 함께 백지사(白紙死)로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두 분의 영성적 관계는 단내 성지가 성가정 성지로 선포된 정신적·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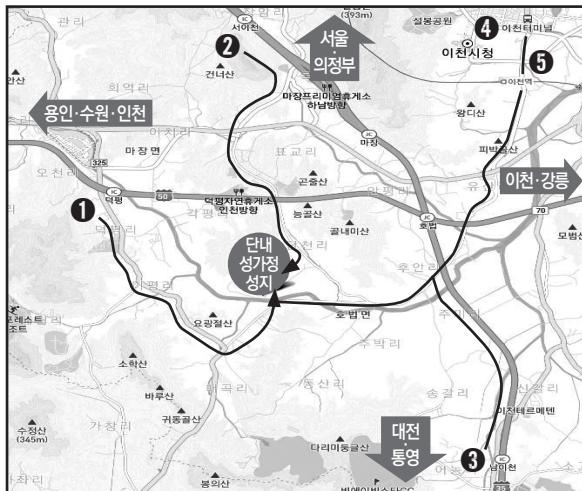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15일 ~ 12월 14일)

자동이체	279명	4,329,000원	은행지로	34명	536,000원
C M S	348명	4,022,000원	합 계	661명	8,887,000원

신규 후원 회원 | 11.15 ~ 12.14 : 3명(팀)



단내 성가정 성지 오는 길



순례코스 방향 거리 및 소요 시간

- 1) 성가정상 ⇒ 십자가의 길 ⇒ 순교자묘소 : 300m/30분(기도 포함)
- 2) 성가정상 → 예수성심상 → 십자가의길(기도 포함) ⇒ 순교자묘소 : 900m/50분
- 3) 성가정상 → 예수성심상 → 검은바위 ⇒ 김대건성인로 ⇒ 성지 : 2km/40분
- 4) 성가정상 ⇒ 예수성심상 ⇒ 굴 바위 ⇒ 검은 바위 ⇒ 김대건성인로 ⇒ 성지 : 5.2km/1시간 30분

- ① 영동고속도로 ⇒ 덕평IC ⇒ 좌회전 ...
⇒ (단천리 방향) 단내 성가정 성지
- ② 중부고속도로 하행선(통영방향) ⇒ 서이천IC
⇒ 우회전 ... ⇒ (단천리 방향) 단내 성가정 성지
- ③ 중부고속도로 상행선(동서울방향) ⇒ 남이천IC
⇒ 우회전 ... ⇒ (단천리 방향) 단내 성가정 성지
- ④ 시내버스 ⇒ 이천 종합 터미널 맞은편 '태평양 약국' 앞 승차(매곡리, 단천리 방향) ⇒ (단천리 마을회관 정류장 다음) 단내성지 하차

단내로 들어오는 이천으로 나가는	단내로 들어오는 이천으로 나가는
이천터미널 버스번호	단내 출발 이천터미널 버스번호
8:20 22-1	8:50 15:40 22-13
9:20 22-12	10:00 17:10 22-11
11:30 22-11	12:25 17:50 22-11
	14:10 19:50 22-1
14:00 22-13	14:45 20:30 21:30 22-11
14:50 22-1	15:30 22:10

- ⑤ 전철(경강선 : 성남 – 여주선) ⇒ 이천역 하차
(바로 앞) 매곡리, 단천리 방향 버스 승차 ⇒ 단내 성가정 성지

버스노선 및 시간표는 위에 ④번 참조 (이천터미널에서 5~10분 후에 이천역 도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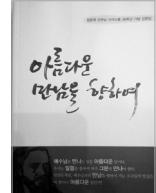
김문태 지음
254쪽/값13,000



자료제공 정운택 신부
김수 최재필 신부
160쪽/값10,000



천주교 수원교구
327쪽/값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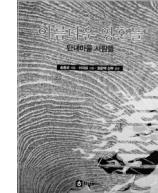
정운택 신부 강론집
478쪽/값18,000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사성추진위원회
104쪽/값3,000



정운택 신부 지음
127쪽/값3,500



송동균 지음
정운택 신부 감수
88쪽

성가정 성지 후원가족 가입신청서



성명	세례명	전화번호
주소		축 일
교구	본당	월 회 비

성가정 성지 후원가족 가입신청서는 보내주세요 >>

팩스 (031) 634-9530 전화 (031) 633-9531

17395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설대천로 171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11월 15일 ~ 12월 14일)

CMS

합계 4,022,000원

● 후원금 5,000원

강수자	권준우	김아린	김태완	박명자	박용수	송영조	유연선	이상례	이옥진	임은숙	조승신	현승우
고경옥	김경희	김아윤	김현숙	박상준	변연석	송정례	유우진	이순이	이정진	정길순	조준기	현승우
고영은	김군자	김완중	나영순	박서정	소용자	양육진	유지현	이순자	이정임	조경례	조금자	한국우
고준명	김명숙	김용진	문창희	박선아	송연호	유성근	유인순	이옥경	이종영	조금자	조숙진	한국우
고준호	김미숙	김재숙	박경숙	박숙자	송영오	유유승	윤향심	이옥분	이현주	하선미	한국우	한국우
권남훈	김미심	김재숙	김재숙	김재숙	김재숙	김재숙	김재숙	이희순	이희순	이희순	이희순	한국우
	김순애											

● 후원금 10,000원

권태룡	김영조	김태웅	박다자	송재룡	엄태관	윤상호	이문섭	이정숙	임차순	정태영	최영자
권현수	권현수	김오연	김필자	박금순	송준영	오숙희	이미경	이정희	장병철	정한	최운재
강문수	권혜경	김오영	김해순	박승관	송준하	오진규	윤철민	이승재	장선이	정혜숙	최동영
강문숙	김광희	김용석	김형일	박유미	송창수	왕임준	윤형민	이시봉	장선자	조경애	죽죽희
강석우	김기옥	김용희	김혜경	박종순	송현정	우제신	이강은	이시홍	장영진	조복자	한국우
강외숙	김기자	김원산	김혜연	박준희	송환금	우혜영	이경희	이영빈	장재홍	조영희	한국우
강원재	김나영	김은순	김혜원	박찬숙	신길순	유덕예	이계완	이영아	장항순	조영희	한국우
고희자	김동환	김일우	김혜원	박중숙	신명호	유석민	이광준	이현상	전병숙	조경선	한국우
공재근	김문주	김재룡	김혜자	반석현	신영자	유선영	이영희	이현숙	전영종	조정한	한국우
곽봉심	김미란	김정순	남동관	남순덕	반중현	유선화	이기선	이현자	정선희	조한제	한국우
구명옥	김민정	김정아	백군기	백군기	안미선	유영자	이길범	이형자	정선희	주용식/김영자	한국우
구정자	김병규	김정임	남윤민	빈선임	안성혜	유영희	이다현	이윤정	정선희	지성인	한국우
국경희	김상경	김정자	남윤혜	서상희	안영희	유옥순	이대영	이영준	정선희	지현순	한국우
국승봉	김성진	김정주	남지정	성평용	안희남	유재각	이래형	이혜미	정선희	진영규	한국우
권성숙	김성현	김종진	노현정	노경열	안봉순	유정자	이은상	이효미	정선희	진영규	한국우
권순열	김연신	김진규	도분련	송기윤	송기윤	윤미희	이명순	이은주	정선희	정경희	한국우
권오필	김영설	김주자	명선주	송선옥	송선옥	윤복득	이명호	이의경	임방수	정진우	한국우
권은주	김영자	김태섭	박계숙						임영애	최경희	한국우

● 후원금 12,000원 : 노승경

● 후원금 20,000원

김미경/박상협	김월순	노정임	문현숙	박문순	박춘희	신범식	유경숙	이선주	이월범	이종석(가족)	최종숙
김승규	김정호	류은경	박가현	박복술	배상옥	신순옥	윤은숙	이선희	이재일	이준우	조상원/민현숙
김연분	김종금	류은정	박기홍	박순양	손우경	양정자	이문화	이영숙	이정자	전은지	주덕자
김영조											한국주/김현숙

● 후원금 30,000원 : 김형대, 김혜정, 남봉현, 박상영, 박영숙, 방정근, 임서연, 황유정/권도균, 황재덕

● 후원금 50,000원 : 류계분, 박재신, 이사용

● 후원금 100,000원 : 김영민, 유정숙

자동이체

합계 4,329,000원

● 후원금 2,000원 : 김봉순

● 후원금 3,000원 : 권혁진/박장복, 김야기/정미애, 박정자, 백재화, 선우정옥, 신경선, 장지영, 최원희, 황유자

● 후원금 4,000원 : 이영숙

● 후원금 5,000원

강영숙	김난향	김의집	노면선	박광희	서연학	신명수	오희자	이령미/이은주	이주현	임홍자	조순미	최진혁
강영숙	김선동	김정호/김태순	노원희/김민승	박금순	선금자/김진용	신상돈/윤영숙	온창숙	이상호	이평순	장정자	최기재	한월선
공상경	김순식	김정희	류한은	박미연	손원일	신재준/문은정	윤석남	이숙임/박은숙	이현우/김선희	전영희/피영숙	최미라	홍경숙/김민국
권희진	김순희	김행숙	맹애희	박창순	송기덕	심순기	윤종한	이순임/정형민/정현	이혜순	정성균/박정희	최부덕	홍경숙/김민국
김진/남기우	김연식	김형정	명도숙	박대현	송순옥	심순기	윤혜주/원나	이정화	임영재	정준영/유재용	최우민/김대식	황영자
김경민	김영란	남유필/남경모	민슬기/신은복	백수오	송희숙/최용덕	심옥진	이재상/김경희/김희태	이정화	임영희	정혜숙	최진욱	황윤희

● 후원금 6,000원 : 정수환

● 후원금 10,000원

강영순	김말연	김양순	김주옥	백진우	안홍선	윤준영	이순임	이치범/박소영	정영자/이정호	정혜련	최종희	한지희
강옥자	김명란	김연희	김형순	변영애	양은선	이영희/이순주	이영순	임승숙	정외숙	정혜숙	최태호/문순	한명준/한희영
정지원/김소연	김명구	김영구	남순덕	서선애	엄금자	이경규	이영재	임유라	조송자	조송자	표미옥	함설희
고은정	김병철	김영숙	박경순	서정심	오세희	이경자	이옥자	장성두	정운숙	조한덕	표종희	홍성희
곽경숙	김부자	김영순	박광애	신혜경	오예숙/김소연	이경호	이재신/이희숙	장영란	정운숙	주기순	하성곤/가족	홍정문/김정애
김경숙	김석호	김영옥	박덕환	심기순	오현주	이명순	이정옥	장재영/한혜숙	정운학	진금희	하순옥	홍일순
김광옥	김선영	김우경/정복순	박민정	심형석	원남순	이명자	이정자	전영이	정자우/정나비	최명윤	한군희/이의열	홍종순
김금순	김선훈	김이주/반죽임	박선희/최상환	안광수	일장환/이승미	이미현	이증대/체현숙	전영자/김세준	정창수	최봉민/곽분	한만희	홍종희
김기창	김세정	김정이/강정덕	박우호/문범미	안문인/박영숙	유용완	이상호	이종호	전은숙	정현조/이미숙	최용성	한상익	황순경
김도훈	김수진	김종오/김성희	박윤우/김영수	안현남	윤순자	이선자	이자빈/정재일	정미수	정현순	최우진	한영선	황해영
김만희/김근태												

● 후원금 20,000원

권필승/이택주	김정자	민경원	한도현/정우성	이경희	이상화/김은정	이재숙/정경기/정보영	이태관	정경수	정성민	정운경	최병노/박서연	홍미혜
김덕순	김지현	김신옥자	한철환	이기쁨	이옥형	이종호/김영애	장영숙	정남진/김영자	정송희	조영숙	최명희/방현진	홍효봉
김영희		신혜선	여현숙									

● 후원금 30,000원 : 김인순, 김정인, 김창선, 배인수, 백창현, 오동교, 이재익, 장다연, 정운교, 정은숙, 황해영

● 후원금 50,000원 : 강카타리나강, 김명숙/문희웅, 김정덕, 모전동본당, 박길원, 양영호/강수재, 왕홍균/강희정, 유순화, 장윤경, 정병훈/박영자

● 후원금 100,000원 : 김민정권지호, 김선희/남현석, 김영숙

● 후원금 120,000원 : 김유철/이용숙, 이호철/은지, 정다함/김종애

● 후원금 500,000원 : 이종홍

지로

합계 536,000원

● 후원금 3,000원 : 최명국, 황금욱

● 후원금 5,000원 : 김경옥, 김영희, 김정예, 김정옥, 김홍호, 박준성, 이윤옥, 이형숙, 임경숙, 임완종, 최서현, 현창호

● 후원금 10,000원 : 김명숙, 김일홍/안영호/김재연가정, 박수분/최오선, 박정숙/김학송, 성숙자, 송지훈, 이윤권, 이종국/반임순, 이훈준/이훈성, 이희정, 임완종, 최용주, 추미선, 추미선

● 후원금 20,000원 : 박희주

● 후원금 30,000원 : 김순자, 이병대

● 후원금 50,000원 : 유종구, 정운목

● 후원금 150,000원 : 송재련